

텍스타일의 역사적 고찰

- 식공간에서의 텍스타일 -

Consideration on Textile in Respect of Its History
- Textile in Dining Space -

유한나* · 계수경**

【목 차】

I. 서론	Abstract
II. 본론	참고문헌
III. 결론	

I. 서론

이론가 비더만 - Biederman 에 의하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또는 단순하게 위치하고 있는 사물들은 약 2만개에서 3만개가 된다고 한다.¹⁾ 이렇게 많은 사물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융합하거나, 또는 새로운 맥락적 컨셉(Concept)을 통하여 그 존재가 기존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들에 대해 포퍼(Popper)는 “제품과 함께하는 인간의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사물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고 하였다.²⁾ 즉 인간의 생활과 함께하는 모든 사물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환경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문화적인 기능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을 쉽게 이해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환경의 중심으로 제공되어 지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보다 용이하게 수용자에 의하여 수취, 또는 이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경민대학 호텔조리과 강사

** 경민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1) Biederman, 「Recognition-by Components : A theory of human image understanding」, Psychological Review, p.115~147.

2) Popper K. R, 「Logik der Forschung」, 3Auf, Tuebingen 1969, p. 18.

2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현대 사회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고도의 정보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소득의 향상으로 인하여 더욱 수준이 높은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 사회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과거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식공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은 인간 생활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개성을 보다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 결과 식공간도 에너지를 섭취하는 일차적인 공간에서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음식보다는 음식이라는 주 상품을 포장하는 주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³⁾

식공간을 연출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공존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속성들은 발생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은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미술, 조리, 건축, 식문화사로 한정되어져 있으며, 그에 반하여 식공간 연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기(Dinner ware), 글라스 웨어(Glass ware), 센터피스(Centerpiece), 커트러리(Cutlery), 소품, 텍스타일(Textile)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식탁 연출의 기본 요소 가운데에서도 텍스타일은 식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컨셉(Concept)을 보여주기 가장 용이한 시각적 요소 중 하나이다. 식공간에 있어 식탁위에 올라오는 텍스타일은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이블クロス(Table Cloth)이며, 테이블 크로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탑 크로스(Top Cloth), 식탁보에 변화를 주고 싶거나 화려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러너(Runner), 식사하는 사람 각자의 앞에 놓는 것이 개인용 매트(Mat)이다. 그 밖에도 도일리(Doily), 냅킨(Napkin)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텍스타일이다.⁴⁾

이러한 텍스타일의 사용에 있어서 단순히 소재의 특성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객관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텍스타일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고 텍스타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식공간 안에서도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조경숙, 「한식당 식공간의 시각적 요소의 중요도와 성과도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0. p.1.

4) 조경숙, 상계서, p. 53.

II. 본 론

1. 텍스타일의 개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텍스타일을 보거나, 만지고, 몸에 직접 걸치기도 하는 등 가까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텍스타일이란 제품을 위한 소재 즉 '섬유' 또는 '직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커튼, 융단, 식탁보, 옷까지 모든 천 종류를 총칭한다.

텍스타일은 크게 의류와 인테리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대 산업에서의 텍스타일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식공간 내부 장식에 사용되는 텍스타일에는 커튼지, 드레이퍼리, 의자와 소파 커버, 벽지, 카펫, 테이블클로스, 냅킨, 매트 등이 있다. 커튼이나 드레이퍼리는 여름에 햇볕을 차단시켜 주며, 겨울에는 따뜻함을 주고,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드레이퍼리는 건축 양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식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내외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⁶⁾

2. 텍스타일의 역사

직물의 역사에는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그 중 식공간 연출 분야 역시 직물의 역사의 한 구절을 채우고 있다.

고대 인류에 관한 기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고고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원시인들의 물질문화의 일부였다는 점에서는 인류학과 관련이 있다. 모티프의 해석면에서는 종교 및 상징주의의 연구와 관련이 있으며 사용된 섬유를 식별하고, 염료를 분석하고, 혹은 낡은 직물을 세척하는 작업에는 화학 기술이 관련된다. 직물의 역사에는 심지어 당대의 정치, 경제 상황까지 깃들여 있다. 예술적 분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직물을 식별하고, 그것의 연대를 확인하는 일은 미술사가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직물은 예술품으로 분류되어 위대한 회화작품들과 함께 전시되는가 하면, 다른 직물들은 민속품으로

5) 권혁재, 「인테리어 제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0, p.3.

6) 양행기, 전계서, p.4.

4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간주되어 공예품들과 함께 전시 된다. 물론 ‘관광품’이란 것도 있다. 그것은 재래식 직조의 상품화를 뜻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사회학적 혹은 심리학적 의미를 지닌다.⁷⁾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텍스타일은 의류나 인테리어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실내공간에서의 텍스타일의 이용 혹은 연출에 대한 사적 연구는 인간의 생활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물의 역사 연구는 이처럼 여러 분야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텍스타일의 종류별 특징과 함께 발전 경로를 되짚어 보는 작업을 통해, 식공간 연출에서 보다 적절하게 텍스타일을 활용하여 더욱 창조적인 연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텍스타일의 종류별 역사

1) 아마(亞麻)

섬유로 이용된 최초의 식물은 플랙스(flax), 즉 아마이다.

아마는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에서도 재배되지만 특히 이집트는 ‘린넨의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린넨은 이집트에서 적어도 6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 이집트 출토의 천 조각 중에는 B.C. 4500년으로 연대가 추정된 것들이 많다.⁸⁾

이집트에서 린넨은 보편적인 의복 재료였으며, 회화 중에는 매우 섬세한 린넨 의상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린넨은 또한 신성(神聖)의 상징으로서, 이집트의 사제들은 항상 린넨 옷만 입었다. 이집트는 뚝을 만드는데 필요한 린넨을 수출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보통 양모로 된 로브를 입지만, 내의로는 린넨을 사용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유포되어 있던 동안 린넨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아마를 순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제들은 주로 린넨을 입었다.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에서도 린넨이 수공업으로 생산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린넨을 세계 곳곳에 보급시켰고, 영국 및 플랑드 지역에 아마를 전파했다.

그리스에서는 아마가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그리

7) Kax Willson, 박남성·차임선 역, 『History of Textile』, 도서출판 예경, 2002, p.21.

8) Grace Crowfoot, 『Textiles, Basketry, and Mats』, in A History of Technology, 5 vols., ed. Charles Singer et al, Oxford, 1958, 1:413.

스 여인들 중에는 종래의 뚝새풀 대신 린넨으로 된 손수건을 더 선호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하여 B.C. 4~5세기경의 그리스에서는 린넨을 생산하는 가내 수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은 그리스 본토보다 인근 식민지들에서 더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로마인들은 최초의 농업시험장이라고 할 콜레지(colleges)를 설립하여 아마 및 양모생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그 기술을 전 로마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세의 린넨 산업의 중심지는 플랑드르였다. 16세기 초엽에는 겐트(Ghent), 브루게스(Bruges), 이프레스(Ypre), 꾸르뜨레(Courtrai) 등지에 고급 다이아퍼 및 다마스크 산업이 발달했다.

영국에서의 린넨 산업은 16세기 말이 되어서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지역의 숙련공들이 스페인의 박해를 피해 대거로 이주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 영국은 거친 린넨과 레이스 정도 밖에 생산하지 않았다. 영국인들의 주요 관심은 양모 생산 및 모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⁹⁾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12세기경부터 린넨 산업이 활기를 띠었고 13세기부터 영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17세기, 영국은 법으로 아마 산업을 억제했으며 아일랜드는 린넨 산업에 호조를 보였다. 대신 아일랜드의 양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의 남부에서는 양모 산업이 쇠퇴했고, 개신교를 믿는 아일랜드 북부에서는 아마 산업이 크게 번창했다. 벨패스트 시는 시계의 린넨 중심지로 부상했고, 19세기부터는 공장 제도가 가내 공업을 대신하게 되었다.

2) 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 목화의 요람지는 인도라고 할 수 있다. B.C.3000년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화 방사들이 인더스 강 유역의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이다. 목화의 최초의 품종은 목생 목화(tree cotton)였지만 관목 목화(shrub cotton)도 여러 품종이 있었다. 면방직 산업은 B.C.1500년 경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최근 기계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렇다 할 기술적 변화가 없을 정도였다. 인도의 목화 산업은 기본적으로 가내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로 목화는 인도로부터 서양으로 전해져 처음에는 무역품의 일환으로, 다음은 목화 나무로, 그리고 면방직 산업으로 전해졌다. 아시리아에는 B.C. 700년경에 전래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바빌로니아로 전해졌다. 로마 시대까지는 소규모로 경작되었지만.

9) 카스 윌슨, 전게서, pp31~6.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헬레니즘 시대부터 목화가 재배되었다. 로마에서는 목화가 카르바시나(carbasina)로 불렸으며 기원전 71년 텐트용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스에서는 A.D. 2세기 엘리스에서 처음 목화가 재배되어 여인들은 그것으로 머리 망사를 만들었다. 그리스의 학자 폴룩스(Pollux)는 린넨 경사(經絲)에 면사 위사(緯絲)로 된 천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퍼스티언(fustian)¹⁰⁾에 관한 최초의 기사이다.

로마의 쇠잔과 함께 목화 무역도 쇠하게 됐으나 9~10 세기경 아랍 세력의 대두로 활기를 되찾았다¹¹⁾. 무슬림들은 목화재배를 크게 장려했으며 그것을 스페인에 전파했다. 그 결과 스페인에서도 목화가 번창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13세기부터 면방직 산업이 발달하여 밀라노, 파두아, 제노아 등이 직조 및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베니스와 밀라노에서는 4세기부터 퍼스티언 및 디미티(dimity)¹²⁾천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천들은 프랑스의 초기 정기(定期)시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면방직업 특히 퍼스티언 직조법은 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반면 영국에서는 인도의 면직물이 8세기부터 알려져 있었다. 영국 교회들의 소장 목록에 의하면, 염색 혹은 페인트 된 인도 면직물은 이미 16세기 전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국적 프린트 및 실용적 직물들이 대량으로 영국에 유입된 것은 포르투갈인들이 해운 항로를 개척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17세기부터는 면직물이 린넨을 대체하게 되었고, 면직물에 관한 한 인도는 유럽 및 아메리카의 주 공급원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영국의 산업혁명 전까지 이어졌다. ¹³⁾

3) 견

견은 매우 강하고 탄력이 있는 섬유이다. 흡수성이 강하여 입기에도 매우 편한 느낌을 주며, 그것은 또한 여타의 자연산 섬유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광택을 지니고 있다.

기원전 2700년 경, 중국의 공주 시링치(Si-Ling-Chi)가 정원을 거닐다 무심코 뽕나무 사이에서 누에고치 하나를 땀다. 얼마간 그 고치를 가지고 놀던 그녀는 실수로 그것을 찻잔에 떨어뜨렸다. 그때 그녀는 고치로부터 가느다란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견직(絹織)산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시링치는 비단의 수호 여신이 되었다.

10) 퍼스티언(fustian) 천은 중세의 복지로, 능직 무명의 일종이다. 지금의 코듀로이, 벨벳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11) 목화를 일컫는 영어의 코튼(cotton)은 아랍어 꾸튼(qutn)에서 유래한 말이다.

12) 디미티(dimity) 천은 침내나 커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격자무늬 무명을 말한다.

13) 각스 윌슨, 전계서, pp37~40.

고, 1911년 전까지 중국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는 제사가 행해졌다. 그녀가 태어난 산동성은 견직(絹織)의 요람지로 알려져 있다.

로마인들이 비단을 처음 본 것은 B.C. 53년, 페르시아의 카레 전투에서였고 B.C. 45년 로마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것은 시저의 차양을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비단은 고급 사치품으로 인정을 받아, 로마 의회는 1세기경 그것을 금지시킨 적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갔다.

한대(漢代)의 중국은 서쪽으로 국토확장을 시작하여 B.C.110년에는 페르시아의 파르티아 조정에 대사까지 파견했다. 그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대상(隊商)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끊임없이 서쪽으로 향했다. 이른바 실크로드로 알려진 서역행로가 중국과 시리아, 소아시아, 인동 등지를 연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주거지역이 발달했으며 비단 무역에는 고액의 현물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견사와 견직물은 수출했지만 그것의 제조법에 관해서는 엄격히 비밀을 지켰다.

그러나 누에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었다. 서기 200년경에 일본인들이 그것을 배웠다고도 하고 한국인들이 네 명의 중국 첩자들을 잡아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설에 의하면 서기 400년경 코탄(Khotan)의 한 왕자와 결혼을 한 어떤 중국 공주가 지참금의 일환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사이에 누에를 숨겨왔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두 명의 네스토리아 승려들이 중국 혹은 코탄으로부터 누에알과 뽕나무 씨를 그들의 지팡이 속에 숨겨 와서 비잔틴 제국에 전하였다.

견직업은 중세 말엽에서 근세 초엽에 걸쳐 유럽 남부로부터 북부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견직업의 중심은 여전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남부 지역과 영국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양잠업이 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미립자(微粒)병이란 누에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일본이 생사의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나 오늘날은 중국이 다시 생사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¹⁴⁾

4) 양모

양모는 세계의 주요 섬유 중 가장 늦게 방적이 이루어졌다. 양모를 깎는 가위는 B.C.1000년경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용되었다. 그 전에는 빗같이 생긴 도구로 섬유를 뜯어내거나 혹은 돌칼로 잘라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메소포타미아는 ‘양모의 땅’이었다. 이곳에서 양들이 최초로 가축으로서 길러졌는데 그

14) 각스 윌슨, 전제서, pp.40~42.

증거로 우르(Ur)의 명판(銘板)¹⁵⁾에는 거대한 무리의 검정색 및 흰색의 양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유태인들은 양모가 햇볕에 바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으며, 그 결과 그들이 생산해 낸 흰색 양모는 매우 유명했다. 팔레스타인 및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B.C.1000년 경 양모의 방적과 직조가 대규모로 행해졌으며, B.C.7세기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부터 손으로 짠 모직물을 구입해 그것을 영국산 주석과 바꾸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양모로 실과 직물을 만들었다. 발굴된 양의 유해와 야생 양들의 뼈화 및 불모양의 양모 방사는 B.C.2000년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모 산업은 그 후 아마 산업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기원전 몇 백 년 사이에는 다시 시리아인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양모는 그리스 의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B.C.6세기의 그리스인들은 올이 꼬이고 보풀이 많은 방모사(紡毛絲)¹⁶⁾와 트리타(trita)란 이름의 소모사(梳毛絲)¹⁷⁾를 생산했다. 또한 로마에서도 양모는 매우 중요한 섬유였다. 로마에는 전문적인 양 사육사가 있었으며, 스페인의 메리노양을 개발한 것도 이들 사육사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직공을 고용한 양모 농장도 있었고 각 분야가 전문화 되어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13세기 이후 두 가지 종류의 양이 사육되었다. 트랜스후만테스(Transhumantes)란 이동성(移動性) 양과 에스탄테스(Estantes)라는 정주성(亭主性) 양이 그것이다. 메리노양은 14세기경 트랜스후만테스로부터 개량된 품종으로 그 양모가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었다.

고대의 양모 산업의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였다면, 중세 말 및 근세의 양모 중심지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양모 역사는 매우 길어, 현존하는 요크셔의 유품은 최소한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야만인들의 침입으로 한 때 쇠퇴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1066년 정복자 윌리엄의 영국 정복과 더불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윌리엄은 다수의 직조가들을 영국으로 데려 왔고, 1080년에는 브리스톨에 직조가 길드까지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13세기부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양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1788년 영국 죄수들을 위한 식민지로 시작된 오스트레일리아도 다량의 양모를 영국으

15) B.C. 2000년 경

16) 방모사는 짧은 양털이나 소모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꼬나풀 따위를 뒤섞어 만든 것이다.

17) 소모사는 소모방적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털실의 총칭한다. 5cm 이상의 비교적 길고 품질이 좋은 양털섬유를, 방적공정에서 잘 빚어서, 단섬유(短纖維)나 또는 세모(洗毛)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가벼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섬유를 직선상으로 잡아 늘이고 동시에 평행상태로 가지런히 한 다음 꼬임을 가하여 만든 실이다.

로 수출했다. 양모 운송으로 유명한 19세기 중엽의 쾌속 범선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역시 다량으로 양모를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출했다.

4. 식공간에서의 텍스타일

린넨의 유래는 기록에 따르면 냅킨이 등장한 것은 로마시대라고 한다. 나이프로 잘린 것을 손으로 집어먹기 위해 더러워진 손을 ‘맛파’라고 불리는 천에 닦았는데 로마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없어졌다가 루이 1세 시대 유럽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후에 맛파가 변모하여 14세기경 보드 클로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중세 초기에는 식사 전용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각대에 판자를 놓고 마루까지 닿는 길이의 테이블보를 깔아 오늘날 테이블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큰 방에 놓았다 이 테이블 위에는 냅킨의 역할을 한두 번 접은 탑 클로스(top cloth)가 깔렸다.¹⁸⁾ 식사 시에 이 천으로 더러워진 입과 손을 닦았다.

15세기 경에는 바스 타올(bath towel) 크기의 린넨을 하인이 어깨에 걸치고 다녔다. 그 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닦는 작은 천이 제공되었고, 작은 것 또는 귀여운 것을 의미하는 ‘킨’이 붙어 냅킨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당시 상등품의 린넨은 은기의 가격에 비등할 만큼 고가여서 사용 후에는 세탁하여 풀을 먹여 열쇠가 채워진 방에 보관하였다. 무역이 성하게 되면서 중국 견직물과 중·근동의 직물들이 유행처럼 퍼져 부의 상징으로 주단을 테이블위에 펼쳐 놓았던 것도 이 무렵이다.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나이프, 포크, 스푼이 세트처럼 되어 손으로 먹던 때와 달리 손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자 린넨은 단순히 손을 닦는 용도에서 벗어나 주름을 잡아 식탁을 아름답게 디자인 하는 용도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상류 사회에서도 냅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접어 부와 호화로움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식탁을 장식했다.

19세기에 들어와 테이블 스타일이 확립되면서 다시 본래 냅킨의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고 화려한 장식의 냅킨 홀더가 유행했다. 현재 정찬용은 홀더 안에 넣지 않고 심플하게 접어 사용하고, 비정찬용이나 캐주얼 등에서는 다양한 냅킨 홀더를 이용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식공간에서 텍스타일은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형태로, 또한 다양한 의미로 발전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앞서서도 계속 강조하였듯이 텍스타일은 같은 공간 내에서도 그것

18) 김수인, 전계서, p.53.

19) 김수인, 전계서, pp. 92~3.

이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색상으로 어느 곳에 배치가 되었는가에 따라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린넨의 역사에서 보듯이 17세기 후반 이후로 커트리리를 사용하면서부터 테이블 탑에서의 텍스타일은 손이나 입을 닦는 단순한 기능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텍스타일의 질감과 색상을 활용하여 테이블을 아름답게 연출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텍스타일을 내놓아 자신의 부와 호화로움을 상징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은 테이블 탑의 텍스타일이 식공간에서 식사를 돕는 부수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질과 분위기를 주도하고 식사를 베푸는 사람의 신분과 영향력까지 나타내주는 데까지 발전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지닌다.

5. 인테리어 및 식공간에서의 텍스타일

텍스타일은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쓰인다. 프린트, 니트, 우븐, 자카드, 자수, 레이스 등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텍스타일의 용도는 크게 침장류용, 식탁용, 인테리어용, 의류 직물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대의 문화와 생활수준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환경도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섬유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된 디자인에 의하여 보다 나은 실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내공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미적 감각과 공간의 이미지를 잘 표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성, 독창성, 대중성을 지닌 디자인이 형성되어야 한다.²⁰⁾

우리나라의 경우, 인테리어에서의 텍스타일의 사용은 외국만큼 절실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거 환경에 의한 차이로 한옥은 온돌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좌식 주거공간을 형성하여 텍스타일의 사용은 침장류 등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서구식 생활양식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인테리어용 텍스타일의 쓰임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1970년대 경제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텍스타일 업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아파트와 양식 주택이 정착함에 따라 생활양식 또한 급변하게 되면서 텍스타일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텍스타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식공

20) 이수철 외, 전게서, p. 26.

간에서 텍스타일이 필수적인 것이 된 식공간으로 바뀐 것이 주목할만하다.

〈표 1〉 텍스타일의 용도별 분류²¹⁾

구분	품목
의장품(Furniture)	소파 커버, 커튼피, 응접세트
휘장용(Hangings)	커튼, 바란스, 벽지 등
침장용(Domestic)	침대시트, 베게
	침대 커버
	담요, 모포, 깃털 이불
	매트리스
식탁용	테이블클로스(Table cloths)
	냅킨(Napkins)
	타월, 수건(Towels and Wash cloths)
Floor Covering 용	카펫(Carpets)
	러그(Rugs)
	패딩(Padding)
기타	등갓, 여분의 쿠션, 샤워커튼, 킬트, 축하카드, 가전제품, 식기, 접시 등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타일의 역사와 소재에 관한 문헌 분석을 통해 텍스타일의 현 위치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식공간의 개념과 구성요소, 텍스타일의 역사와 각 분류별 특징 등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디자인 이미지 개념(Concept)을 설정하여 다양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린넨은 위생적이며 신성시하는 부분이 돋보이므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공간이나 관련 종교의 색채를 띠는 식공간 등에 활용하고 면 소재의 경우 목화의 요람인 인도와 일찍이 면이 사용된 중동 색채의 식공간에 응용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견직물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색채의 식공간에, 양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대계, 팔레스타인 등 양모 근원지를 비롯하여 현재 주요생산국으로

21) 김일규, 「홈인테리어에 있어서 전통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 석사 논문, 1999.

자리 잡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장 용이한 텍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타일은 그 역사와 종류에 따라 느낌과 이미지가 다양화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만을 가지고도 국가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그 나라의 식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의 역사적 특징과 종류를 인식하고 식공간에서의 텍스타일을 선택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We live seeing, touching, or throwing on considerable textile in our life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Since a Korean-style house is a dwelling space in life style of sitting on the floor with ondol(Korean floor heater), use of textile is limited to bedding goods. However, as western life style takes firm root, use of textile for interior design is increasing. As well, as apartments and foreign style houses have gotten lodgment since 1980, life style is being changed rapidly. So, textile became required factors in dining space where little textile existed. Through literature, history of textile is considered and design image concept is creat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In addition, the created concept can be applied to various textile design, which can be a good tool to express eating culture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 country's image.

참고문헌

국내논문

권혁재, 「인테리어 제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일구, 「홈인테리어에 있어서 전통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 석사논문

- 양행기, 「Pop의 홈퍼니싱 텍스타일 디자인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조경숙, 「한식당 식공간의 시각적 요소의 중요도와 성과도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0

국외 Article

Grace Crowfoot, 『Textiles, Basketry, and Mats』, in A History of Technology, 5vols., ed. Charles Singer et al, Oxford, 1958

국내 단행본

- 김수인, 『푸드코디네이트 개론』, 한국외식정보, 2004
- 이수철 외, 『텍스타일 디자인 입문』, 조형사, 1997
- Kax Willson, 박남성·차임선 역, 『History of Textile』, 도서출판 예경, 2002

국외 단행본

- Biederman, 「Recognition-by Components : A theory of human image understanding」, Psychological Revie.
- Popper K . R, 「Logik der Forschung」, 3Auf, Tuebingen 1969

